

## 보건계열학과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권수진, 김혜숙, 박재성  
고신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 Study on Factors affecting to Internet Addiction of Students in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u Jin Kwon, Hye Sook Kim, Jae Sung Park  
*Department of Health Sciences. Graduated School of Kosin University*

#### <Abstract>

The study is designed to compar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Internet users in present Internet use conditions, Internet addition, self-respect, and deviation from a health life and analyze and understand factors causing compulsive Internet use. The research is aimed at suggesting basic information to guide a desirable direction for healthy and effective Internet use.

The survey of 456 students majoring in public health at some universities in the Pusan-Kyungnam areas was made in November, 2006. The results are as follows: As for general information on those surveyed the number of the males was 50(11.0%) and that of the females was 406(89.0%), which shows an absolute higher ratio of the female respondents.

On a question of Internet use frequency 62% of the male students and 44.6% of the female students answered they use the Internet everyday. Also the male respondents' Internet use time was longer. 64.0% of the male students use the Internet for games and entertainment, which were the highest ranked reason. 64.4% of the female students said they use the Internet to check e-mails.

To all the questions assessing Internet addiction, the male users' answers implied higher addiction levels, but there wasn'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However, the statistically outstanding distinction between the two sexes on deviation from a health life is shown in smoking, cheating in a test, obscene video/books, and conflicts with parents. The most answered deviations among the male respondents are smoking, cheating in a test, and obscene video/books, while conflicting with parents is for the female students.

On self-respect the survey has found statistical differences in five questionnaire items and the female showed higher levels in all those questions.

The male students answered cheating in a test(0.399), conflicts with parents(0.391), and Internet use time(0.242) have significant plus(+) influences on their compulsive internet use, while alcohol(-0.308) has a minus(-) influence. The female students answered self-respect(0.114), alcohol(0.097), obscene video/books (0.218), conflicts with parents (0.243), and Internet use time (0.284) factors have plus(+) effects.

**Key Words: Internet addiction, self-respect, deviation from a healthy life.**

## I. 서론

### 1.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보급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률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6년 말 인구 1백 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보급률을 살펴보면, 한국은 69.0명으로 스웨덴(76.2명)과 호주(70.4명)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뉴스 앤 뉴스 2006). 전 세계적인 인터넷 보급 확대로 올해 들어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인터넷 보급률과 가입률은 세계 적으로 앞서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즉각적인 의사소통 수단 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가치관, 의식구조, 생활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들어 인터넷 사용의 가장 부정적인 면인 인터넷 중독에 관한 경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논의는 Goldberg(1996)의 연구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Goldberg는 내성과 금단,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중요한 사회적-직업적 활동이 손상될 때 이를 인터넷 중독이라 하였다. Griffiths(1998)는 약물만이 중독의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며 행동적 중독의 한 측면으로 기술적 중독 즉, 도박, 과식, 성행위, 운동, TV, 컴퓨터 게임 등 인간의 모든 활동이 중독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Young(1996)은 실제 다양한 사례와 치료경험을 통해 인터넷 중독이란 취하게 하는 것을 수반하지 않는 충동조절 장애라고 정의내리며 가정 파탄, 학업문제, 직장에서의 해고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폐해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인터넷의 부작용이 드러남에 따라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있어왔고 인구사회학적인 요인 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에 따라 최근에는 좀더 포괄적으로 대인관계나 가족이나 사회환경에 관련한 연구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연구들도 대부분 Goldberg(1996)와 Young(1996)의 연구를 기초로 조 사되었고 사용된 항목과 결과가 비슷하게 보고되고 있다. Young은 정서적 문제나 자존감이 낮은 경우 자신의 정체성에 만족하지 못할 때 사이버 공간에 집착하기 쉽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내 연구 중에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인터넷 중독점수가 높았다(김세운, 2003).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황계 연, 2002). 인터넷 중독 증상을 많이 보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감정과 행동이 충동적이었다(청소년보호위원 회, 2000). 또한 인터넷 중독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고(김혜원, 2001), 우울, 외로움을 많이 느끼며, 공격성과 자존감이 낮다고 보고하였다(김중범, 1999).

위 연구들의 결과로 볼 때 자아존중감은 인터넷 중독에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대학생이나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미 인터넷 사용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 일반인, 가정주부들에게까지 보편화 되어 있는 실정이고, 인터넷에 사용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모두에게 미칠 수 있으므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하겠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인터넷 사용률이 청소년들에 비해 결코 적지 않으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유의 정도가 크다고 볼 때 더욱 더 주목해야 할 대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여러 유희문화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남녀간에 차이에 관한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인터넷 중독 또는 몰입이라 할 수 있는 정도를 살펴보고 인터넷사용과 관련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건강생활 일탈행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남, 녀 간의 특성을 파악해 대학생들의 보다 건강하고 효율적인 인터넷 사용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인터넷 이용 현황에 관해 알아본다.
- 2) 조사대상자의 남녀간 자아존중감과 인터넷 중독수준을 살펴본다.
- 3) 자아존중감과 건강생활 일탈행위에 대한 성별간 수준차이를 비교한다.
- 4) 인터넷 사용과 일탈행위,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

## 3. 연구모형

이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현상과 자아존중감, 건강생활 일탈행위,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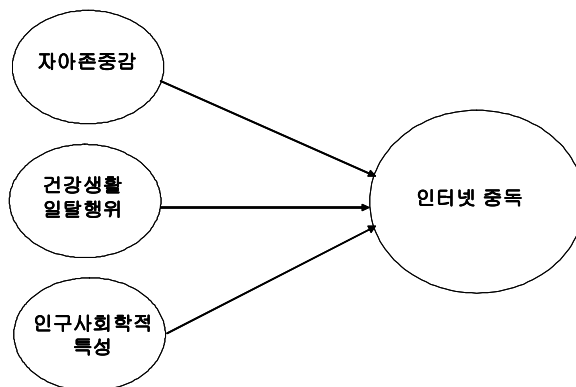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2006년 11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부산·경남지역 대학생들이며 4개 대학 보건계열학과(치위생과, 의무행정과) 남, 여 대학생 45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조사는 조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과별, 반별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460부를 배부하여 모두 회수되었고, 이 중 기제가 누락되거나 적절치 못한 설문 응답지 4부를 제외한 456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연구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헌고찰을 통하여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도출하고 연구의 목적과 대상자에 맞게 설문도구를 수정·보완하였다.

인터넷 중독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부에서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문항(K척도)를 토대로 일상생활장애-2문항과 현실구분장애-3문항을 조사목적과 대상에 맞게 수정 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Self Esteem Scale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10개의 문항 중 3, 5, 8, 9, 10번 문항은 부정적 자아의 개념이므로 나머지 긍정적 자아 문항과 해석이 일치하도록 역으로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건강생활 일탈행위는 청소년 비행 척도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음주, 흡연, 그리고 정신적인 요인으로 컨닝과 음란비디오, 서적에 관한 항목을 선정하였고, 부모와의 관계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용된 전체 문항은 5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⑤=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 1) 인터넷 중독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자기 통제 능력 조절의 어려움을 의미하며, 생활의 불규칙, 성적 하향, 가족과의 마찰, 건강상의 문제(어깨/눈), 수업시간의 피로 등을 하위구성요소로 하였다.

#### 2) 자아존중감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자기 스스로를 중요하며 가치 있다고 여기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 3) 건강생활 일탈행위

대학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강생활에 벗어나는 일탈행위를 정신적·육체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음주, 흡연, 컨닝, 음란비디오/서적, 부모님과의 마찰정도의 5가지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설문 기준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하여 분석하여 각 항목의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 4. 통계분석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PC Package Program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인터넷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chi^2$ 검정을 실시하였다.
- 2) 인터넷 중독, 건강생활 일탈행위, 자아존중감의 남·녀간 수준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 3) 각 요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 <표 2>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성별 비율은 남학생이 50명(11.0%), 여학생은 406명(89.0%)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건계열학과 중에서도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치위생과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성별 분포

성별	빈도	%
남	50	11.0
여	406	89.0
계	456	100.0

종교에 관해 살펴보면 무교라 응답한 사람이 여학생 213명(52.5%), 남학생 28명(56.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불교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지각하는 주관적인 가정경제수준 정도는 '중' 이라 답한 경우가 남학생 20명(40%), 여학생 281명(69.2%)으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이 과반 수 이상으로 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교생활만족도에 관한 문항에서 남학생들은 보통이다가 22명(44.0%), 여학생들은 196명(4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학업성적에 관한 설문에서는 남학생 20명(40%), 여학생 204명(50.2%) 모두 '중' 이라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게 나타났고, 남학생은 '중', '중상', '중하' 순이었고, 여학생은 '중', '중하', '중상'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항 목	구 분	남	여	$\chi^2$ 또는t	p
종교	무교	28(56.0)	213(52.5)	13.926	0.008*
	불교	10(20.0)	137(33.7)		
	기독교(천주교)	9(18.0)	22(5.4)		
	기독교(개신교)	2( 4.0)	29(7.1)		
	기타종교	1( 2.0)	5(1.2)		
가정경제수준	상	2(4.0)	3(0.7)	35.497	0.000*
	중상	7(14.0)	32(7.9)		
	중	20(40.0)	281(69.2)		
	중하	13(26.0)	81(20.0)		
	하	8(16.0)	9(2.2)		
학교생활만족도	평균±표준편차	3.36±1.05	3.15±0.61	2.081	0.000
	매우 만족한다	5(10.0)	20(4.9)	4.166	0.384
	약간 만족한다	18(36.0)	121(29.8)		
	보통이다	22(44.0)	196(48.3)		
	불만족한다	4(8.0)	56(13.8)		
	매우 불만족한다	1(2.0)	13(3.2)		
평균±표준편차	2.56±0.86	2.81±0.85	-1.921	0.473	
성적	상	3(6.0)	21(5.2)	3.047	0.550
	중상	12(24.0)	69(17.0)		
	중	20(40.0)	204(50.2)		
	중하	11(22.0)	92(22.7)		
	하	4(8.0)	20(4.9)		
	평균±표준편차	3.02±1.02	3.05±0.89		
계		50(100.0)	406(100.0)		

p<0.05 \*\* p<0.01 \*\*\*p<0.001

## 2. 인터넷 이용 현황

인터넷 이용 현황에 관한 설문문항은 인터넷 이용횟수, 주중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 사용이유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었다<표 3>.

인터넷 이용횟수에 관한 문항에서는 남녀 모두 매일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남학생이 31명(62.0%), 여학생이 181명(44.6%)으로 남학생이 좀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주중 인터넷 사용시간은 1-10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남학생은 평균9.08±9.86, 여학생은 5.85±7.54 시간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좀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 사용으로 할애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터넷 사용 이유에 관한 문항에 관하여는 남학생은 게임과 오락을 위해 서가 32명(64.0%)으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은 E-Mail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260명(64.4%)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유가 확실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3. 인터넷 이용 현황

항 목	구 분	남	여	$\chi^2$ 또는 t	p
인터넷 이용횟수	이용안함	2(4.0)	6(1.5)	8.028	0.045
	주 1-2회	7(14.0)	100(24.6)		
	주 3-4회	10(20.0)	119(29.3)		
주중 인터넷 사용시간	매일	31(62.0)	181(44.6)	9.125	0.028
	1-10시간	36(72.0)	354(87.6)		
	11-20시간	8(16.0)	28(6.9)		
	21-30시간	4(8.0)	16(4.0)		
	31시간 이상	2(4.0)	6(1.5)		
	평균±표준편차	9.08±9.86	5.85±7.54	2.752	0.000
인터넷 사용이유	학습	5(10.0)	33(8.2)	34.239	0.000
	게임/오락	32(64.0)	103(25.5)		
	E-Mail	13(26.0)	260(64.4)		
	기타	0(0.0)	8(2.0)		

### 3. 인터넷 중독에 관한 성별간 수준 비교

인터넷 중독에 관한 성별간 차이정도는 <표 4>와 같다. 첫째,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생활이 불규칙하다(이하 '불규칙 생활'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은 남학생은 2.68±1.168점, 여학생은 2.44±1.118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 사용으로 성적이 떨어진다 생각한다(이하 성적 하락이라 한다)에 관한 전체 평균은 남학생은 2.48±1.129점, 여학생은 2.33±1.066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터넷 사용으로 가족과 마찰을 일으킨 적 있다(이하 가족과 마찰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은 남학생은 2.34±1.287점, 여학생은 2.25±1.121점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터넷사용으로 몸이 아픈 적이 많다(몸이 아픔)에 관한 전체 평균은 남학생은 2.28±1.196점, 여학생은 2.74±1.183점이다. 다섯째, 인터넷을 하느라고 수업시간에 피곤을 느낀다(수업시간 피곤감)에 관한 전체 평균은 남학생은 2.36±1.191점, 여학생은 2.22±1.808 점으로 나타났고, 5개 항목 모두에서 남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 인터넷 중독에 관한 수준 비교

항 목	남	여	t	p
나는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생활이 불규칙하다(불규칙 생활)	2.68±1.168	2.44±1.118	1.405	0.589
나는 인터넷 사용으로 성적이 떨어진다 생각한다(성적 하락)	2.48±1.129	2.33±1.066	0.917	0.572
나는 인터넷 사용으로 가족과 마찰을 일으킨 적 있다(가족과 마찰)	2.34±1.287	2.25±1.121	0.548	0.077
나는 인터넷사용으로 몸이 아픈 적이 많다(몸이 아픔)	2.28±1.196	2.74±1.183	-2.609	0.762
나는 인터넷을 하느라고 수업시간에 피곤을 느낀다(수업시간 피곤감)	2.36±1.191	2.22±1.808	0.527	0.728

### 4. 건강생활 일탈행위에 관한 성별간 수준 비교

학생들의 건강생활 일탈행위에 관한 5가지 항목의 성별간 수준 차이는 <표 5>와 같다. 첫째, '흡연정도' 에서 남학생의 평균은 2.44±1.47점, 여학생은 1.27±0.76점으로 남학생의 흡연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성별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음주정도'에서 남학생의 평균은 2.76±1.15, 여학생은 2.18±1.07점으로 흡연과 마찬가지로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컨닝'은 남학생이 평균 2.10±1.13점, 여학생이 1.56±0.80점으로 나타나 시험 시 남학생의 컨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음란비디오나 서적' 항목에서는 남학생이 평균 2.14±0.93점, 여학생은 1.46±0.70점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고 성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님과 자주 싸움정도' 항목에서 남학생은 평균 1.92±0.88점, 여학생은 2.10±0.95점으로 나타나 다른 4가지 항목에서와 반대로 여학생이 부모님과 마찰이 더 잦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5. 건강생활 일탈행위에 관한 수준 비교

항 목	남	여	t	p
나는 담배를 자주 피운다	2.44±1.47	1.27±0.76	9.007	0.000
나는 술을 자주 마신다	2.76±1.15	2.18±1.07	3.572	0.421
나는 시험 칠 때 자주 컨닝을 한다	2.10±1.13	1.56±0.80	4.271	0.010
나는 음란비디오나 서적을 자주 본다	2.14±0.93	1.46±0.70	6.174	0.003
나는 부모님과 자주 싸운다	1.92±0.88	2.10±0.95	-1.282	0.220

### 5. 자아존중감에 관한 성별간 수준 비교

자아 존중감에 관한 10개 항목의 성별간 수준 차이를 비교한 것은 <표 6>과 같다. 먼저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에 관하여 남학생은 3.68±0.98점, 여학생은 3.55±0.74점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학생의 경우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경우가 남학생에 비해 더 많았다.

둘째,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항목에서 남학생은 4.16±0.91점, 여학생은 3.85±0.72점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학생의 경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가 남학생에 비해 많았다.

셋째,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항목에서 남학생은 2.40±0.99점, 여학생은 2.61±0.80점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여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넷째,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항목에서 남학생은 3.62±0.81점, 여학생은 3.91±0.76점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자신에 대해 존경할 수 있기를 많이 기대할수록 자아존



중감이 낮은 경우가 여학생에게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못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라는 항목에서 남학생은 2.72±1.20점, 여학생은 2.90±0.97점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자신이 좋지 못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정도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가 여학생에게서 더 많았다. 나머지 5개 항목에서는 남, 여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6. 자아존중감에 관한 수준 비교

항 목	남	여	t	p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10±0.93	3.97±0.78	1.104	0.134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68±0.98	3.55±0.74	1.107	0.011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2.12±0.96	2.19±0.81	-0.601	0.38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4.16±0.91	3.85±0.72	2.728	0.017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2.40±0.99	2.61±0.80	-1.738	0.04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4.04±1.050	3.64±0.87	2.988	0.625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3.88±0.96	3.39±0.85	3.786	0.32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3.62±0.81	3.91±0.76	-2.537	0.048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20±1.20	2.50±1.036	-1.916	0.289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못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2.72±1.20	2.90±0.97	-1.219	0.004

## 6. 인터넷 중독, 건강생활 일탈행위, 자아존중감과 의 상관관계

다음은 인터넷 중독과 건강생활 일탈행위, 자아 존중감의 주요 요인 간 상관관계를 남, 여를 각각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 1) 남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건강생활 일탈행위, 자아존중감과 의 상관관계

남학생에서는 건강생활 일탈행위의 주요 요인 중 컨닝, 음란비디오/서적과 부모님과 싸움이 인터넷 중독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인터넷 중독, 건강생활 일탈행위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 2) 여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건강생활 일탈행위, 자아존중감과 의 상관관계

여학생에서는 건강생활 일탈행위의 주요 요인 중 술, 컨닝, 음란비디오/ 서적, 부모님들과 싸움이 인터넷 중독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과 달리 자아존중감도 인터넷 중독과 영향성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7. 남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건강생활 일탈행위, 자아존중감과 의 상관관계

(N=50)

구 분	인터넷중독	담배	술	컨닝	음란비디오 서적	부모님과 싸움
담배	0.244					
술	0.128	0.412**				
컨닝	0.553**	0.341*	0.489**			
음란비디오,서적	0.557**	0.059	0.242	0.455**		
부모님과 싸움	0.680**	0.296*	0.283*	0.585**	0.667**	
자아존중감	0.076	0.194	0.136	0.141	0.218	0.105

\* p<.05 \*\* p<.01 \*\*\* p<.001

표 8. 여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건강생활 일탈행위, 자아존중감과 의 상관관계

(N=405)

구 분	인터넷중독	담배	술	컨닝	음란비디오, 서적	부모님과 싸움
담배	0.079					
술	0.161**	0.347**				
컨닝	0.130**	0.274**	0.235**			
음란비디오,서적	0.307**	0.341**	0.277**	0.304**		
부모님과 싸움	0.354**	0.201**	0.211**	0.167**	0.266**	
자아존중감	0.168**	0.055	0.057	0.131**	0.155**	0.145**

\* p<.05 \*\* p<.01 \*\*\* p<.001

## 7.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회귀분석

조사자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회귀분석을 위하여 종교, 가정경제수준, 인터넷 이용시간, 음란비디오·서적, 자아존중감, 술, 부모님과 싸움, 컨닝, 담배를 독립변수로 하고 인터넷 중독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F분포를 통해 고려할 때 이 회귀방정식의 유의도 수준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R<sup>2</sup> 값은 남학생의 경우 61.0%, 여학생은 27.0%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전체 9개의 요인 중에서 남학생에게서는 컨닝(0.399), 부모님과 싸움(0.391), 인터넷 이용시간(0.242)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술(-0.308)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에게서는 자아존중감(0.114), 술(0.097), 음란비디오·서적(0.218), 부모님과 싸움(0.243), 인터넷 이용시간(0.284)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남학생에게서는 컨닝, 부모님과 싸움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인터넷 사용정도가 많고 술을 자주 마실수록 인터넷 중독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학생에게서는 자아존중감, 술, 음란비디오 및 서적, 부모님과 싸움, 인터넷 이용시간이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조사자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구 분	남			여		
	베타	t	p	베타	t	p
종교	-0.066	-0.134	0.894	0.160	0.784	0.434
가정경제수준	-0.544	-1.014	0.317	-0.072	-0.231	0.817
자아존중감	-0.037	-0.281	0.780	0.160	2.568	0.011
담배	0.212	0.514	0.610	-0.470	-1.680	0.094
술	-1.321	-2.439	0.019	0.402	2.025	0.044
컨닝	1.745	2.777	0.008	1.125	0.481	0.631
음란비디오·서적	0.754	0.975	0.336	1.354	4.465	0.000
부모님과 싸움	2.202	2.514	0.016	1.117	5.231	0.000
인터넷 이용시간	0.121	2.241	0.031	0.165	6.478	0.000
R2	0.610			0.270		
F	6.941			16.173		
p	0.000			0.000		

종속변수: 인터넷 중독

#### IV. 고찰 및 결론

이 연구는 일부 보건계열 남녀 대학생의 인터넷 이용 현황 및 중독수준을 살펴보고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정신적·환경적인 건강생활 이탈행위에 대한 남, 여간 수준차이를 비교하며 인터넷 중독과 건강생활 이탈행위, 자아존중감과 상관을 파악하여 실제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특히 미래의 보건의료 분야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보건계열학과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특성을 파악해 봄으로써 이들의 건강하고 효율적인 인터넷 사용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 11월 중 부산·경남 지역 일부 대학 보건계열학과(치위생과, 의무행정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4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남녀 비율은 남학생이 50명(11.0%), 여학생은 406명(89.0%)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건계열학과 중에서도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치위생과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종교는 '무교', 주관적인 가정경제수준 정도는 '중'이라 응답한 학생이 남녀 모두에서 가장 많았고, 학교생활만족도와 성적 역시 '보통이다'와 '중'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인터넷 이용 현황은 먼저 인터넷 이용횟수에 관한 문항에서는 남학생의 62.0%, 여학생의 44.6%가 매일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남학생이 좀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주중 인터넷 사용시간에 관해서는 남학생은 평균 9.08±9.86, 여학생은 5.85±7.54 시간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좀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 사용에 할애하고 있었다. 인터넷 사용 이유에 관해서도 남학생은 게임과 오락을 위해서가 64.0%로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전자메일 확인을 위해서가 64.4%로 나타나 게임이나 오락중독에 빠져들 위험성이 남학생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인터넷 중독에 관한 남녀 간 수준은 불규칙 생활, 성적 하락, 가족과의 마찰, 몸이 아픔, 수업시간 피곤의 5

개 항목 모두에서 남학생의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기존의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선행연구결과(한국 청소년 상담원, 2000; 이명수 외, 2001; 한미영, 2006; Shotton, 1991; Hybels, 1995)와는 차이를 보이며,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 수준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결과(김순태, 2001; 김용장, 2002)와는 비슷한 결과다. 인터넷 이용률의 남녀차이가 없어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열학과의 특성상 대상이 되는 남학생의 비율이 적었고, 심각할 정도의 중독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없었으므로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건강생활 일탈행위에 관한 남녀 간 수준은 흡연, 컨닝, 음란비디오/서적, 부모님과 의 마찰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은 흡연, 컨닝, 음란비디오/서적 등이 여학생에 비해 높았고, 여학생은 부모님과 의 마찰이 높아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은 주로 대인관계에 기인한 개인/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한 건강생활 일탈행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자아 존중감에 관한 남녀 간 수준은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못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5개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모두 여학생에게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고 나머지 5개 항목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연구(한미영, 2006)와는 일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외부 환경적인 요인보다 개인·심리적인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서일 것이라 생각된다.

인터넷 중독과 건강생활 일탈행위, 자아존중감의 주요 요인 간 상관관계를 남, 여를 각각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남학생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인터넷 중독이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여학생에서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전체 9개의 요인 중에서 남학생에게서는 컨닝(0.399), 부모님과 싸움(0.391), 인터넷 이용시간(0.242)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술(-0.308)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에게서는 자아존중감(0.114), 술(0.097), 음란비디오·서적(0.218), 부모님과 싸움(0.243), 인터넷 이용시간(0.284)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남학생에게서는 컨닝, 부모님과 싸움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인터넷 중독정도가 높고 술을 자주 마실수록 인터넷 중독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학생에게서는 자아존중감, 술, 음란비디오 및 서적, 부모님과 의 싸움, 인터넷 이용시간이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학생의 경우 잦은 건강생활 일탈행위 중 음주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술자리에 의한 또래와의 관계가 긴밀해질수록 인터넷 사용시간이 적어지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여학생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인터넷 중독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건계열학과의 특성상 특히 여학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치위생과의 경우 이론, 실습의 병행 그리고 국가고시를 치러야 하는 부담감과 긴장감이 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높으나 주로 학습과 관계된 이유로 상당 수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것이 기존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인터넷에 몰입하는 정도가 높다는 연구(김종범, 1999; 김세운, 2003)결과와 반대되는 현상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남녀 모두 정신적인 건강생활 일탈행위에 해당하는 부모와의 마찰이 잦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원만하고 안정된 관계가 중요하

다 하겠다.

대학생은 이미 성인인 만큼 개인의 인터넷 사용통제 정도를 최대 반영하여 자아존중감, 정신적·육체적(환경적) 요인 등을 적절히 조절하면 인터넷 사용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조사대상자가 부산·경남 지역 일부 보건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둘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 관련 요인 연구가 부족해 이 연구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셋째, 인터넷 중독에 관한 개념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인터넷 중독 수준을 측정하는데 저마다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었고, 본 연구에서도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표본을 확대해 좀 더 많은 보건계열학과 대학생 중심의 한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인터넷 중독에 관한 모든 대상에 적용될 수 있는 좀 더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개념과 도구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 참고문헌

1. 김순태(2001), 고교생의 인터넷 중독과 자아존중감, 우울, 감각추구성향 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김세윤(2003), 자아, 스트레스 및 인터넷 사용통제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 김웅장(200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과 자아존중감 및 정신증상 차이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 김종범(1999),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특성 연구-자존감, 우울, 외로움,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5. 김혜원(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약과 관련변인 분석. 호서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청소년학 연구, 8(2) : 91-117
6. 뷰스 앤 뉴스 (2006),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 2006년 12월 <http://www.viewsnnews.com/>
7. 이명수 외 (2001), 청소년 인터넷 중독증과 우울, 사회적 불안, 또래관계 문제와의 연관성 조사, 신경정신의학회지, 40(4): 616-625
8. 오태경(2003), 고등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9. 청소년보호위원회(2000),인터넷 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10. 한국 청소년 상담원(2000), 청소년의 PC중독.
11. 한미영(2006),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황계연(2002), 비행청소년의 비행원인과 대체-가족상담이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가족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Goldberg I (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http://www.rider.edu/users/suler/psycyber\\_supportgp.html](http://www.rider.edu/users/suler/psycyber_supportgp.html)
14. Griffiths MD(1998), Internet Addiction: Does it exist? In J. E. Gackenbach(ED.), Psychology and the Internet:

- Interpersonal, Interpersonal and transpersonal implications (pp. 61-75). New York: Academic Press.
15. Hybels S(1995), Cited in "Terminal addiction", *Internet and Comms Today*, No.4, May issue, p.35.
  16.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7. Shotton M(1991), The costs and benefits of "computer addiction", *Behavior and information Technology* 10, pp.219-230.
  18. Young KS(1996b),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ogical Reports*, 79: 899-902.